우암학원 창학69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997호 1판 (음력 4월 4일) 2019년 5월 8일 수요일

5·18의 미래, 독일 '나치 청산'서 배운다

롬멜 나치범죄수사국장 19일 광주 방문 '5·18 포럼' 참가

홀로코스트 가담자 끝까지 추적 '완전 처벌' 사례 소개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 오늘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역사적 작업이어야 한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치 범죄 부역자들을 추적, 재판정에 세우고 있는 독일 나치범죄중앙수사국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교훈을 전한다. 과거사 청산의 선진 사례로 꼽히는 독일은 '완전 처벌' 정책 아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8~20일 열리는 '광주아시아포럼'의 '미완의 과거 청산-성과와 쟁점' 세션(19일 오후 1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 옌스 롬멜(Jens Rommel·47) 독일 나치범죄중앙수사국장(수석 검사)이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롬멜 국장은 '홀로코스트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독일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해 창설 60주년을 맞은 독일 나치범죄중앙수사국(정식명 '국가의 사회주의 범죄 수사를 위한 법무·행정 중앙사무국')은 매년 평균 30명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당시 94세였던 오스카 그로닝을 법정에 세워 전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롬멜 국장은 광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은 나치 처벌이 아닌 전후처리 과정이자 후대에게 독일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했는지 남기기 위한 기록작업"이라며 "우리의 정책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여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롬멜 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90세가 넘는 노인을 굳이 법정에 세워야 하는지', '과거사 청산은 어느 수준으로 언제까지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한 독일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5·18 진상규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15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올해 광주아시아포럼은 '학살과 난민-국가 폭력과 국가의 보호 책임'을 주제로 진행된다.

18일 오후 3시45분부터 5시까지 열리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 논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5·18진상규명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미완의 과거청산'에 대해 발제한다.

지난해 10월 광주일보와 인터뷰 한 옌스 롬멜 독일 나치범죄중앙수사국장.

두번째 세션(19일 오전 9시~낮 12시 민주홀)은 '국가의 책임-난민을 위한 법제도, 인식과 관행-차별과 혐오를 넘어'를 주제로 국가폭력의 또 다른 양상인 난민문제를 다룬다. 한국·일본·홍콩·대만·인도네시아·태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난민 발생 사유와 인권 현황,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방안, 각 국가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번째 세션(19일 오후 1시~3시30분 민주홀) 주제는 '학살책임과 진상규명-미완의 과제'다. 정명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 왜곡의 정치학', 정희상 언론인이 '5·18진상규명과 언론의 역할'에 발제한다. 이어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정문영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이 토론을 벌인다.

한편,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아시아포럼 개막과 함께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열린다.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조안나 까리뇨(필리핀)와 특별상을 받은 인도네시아 디알리타 합창단이 참여한다. 광주아시아포럼과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예술제 첼로 경연 … 이팝나무 아래 흐르는 '봄의 소리'

청명한 날씨를 보인 7일, 제64회 호남예술제 현악부문 경연이 열린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나무그늘 아래서 첼로부문에 참가한 광주예고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현악부문 입상자 명단 17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영화 100년
1960년대 최고 배우 김진규 ▶18면

내일 새벽 4시 '슈퍼 손 타임'
손흥민 챔스 4강 아약스전 골 사냥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1개 도시
베를린·뉴욕·상해 등 세계 23개 도시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자"

5·18 39주년 행사 열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광주·전남은 물론 서울·대구·부산·울산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열린다. 베를린·뉴욕·벤쿠버·도쿄·상해 등 9개국 23개 도시에서도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관련기사 3면〉

기념일 당일이자 주말인 18일에는 2만명을 웃도는 전국의 민주세력이 광주 금남로로 모여 5·18진상규명과 역사왜곡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진상조사위 구성 외면, 이에 더해 일부 극우 단체의 5·18 폄훼집회 움직임 속에서도 광주 5·18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다.

7일 광주시는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행사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올 기념행사 기조와 방향, 기념행사를 확정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5·18기념행사 기조와 방향을 ▲5·18진상규명 ▲책임자처벌로 잡고,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왜곡 여론 차단에 힘쓰자는 데 뜻을 모았다. 5·18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지이자 5·18의 상징과도 같은 옛 전남도청 복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오늘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은 기념행사도 추진한다.

기념행사는 전야행사, 문화예술행사, 기획사업, 5·18역사탐방, 부문행사, 나눔행사, 동네5·18, 전국·해외 5·18 등 모두 11개 분야에서 200여개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해외에서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17일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 ▲18일 39주년 기념식, 범국민대회가 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민주세력이 5·18진상규명과 역사왜곡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특히 18일 금남로에서는 전국의 민주세력이 총결집해 5·18진상규명, 역사왜곡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전남도는 5·18 민중항쟁 39주년을 맞아 지난 30주년 행사에 이어 9년 만에 5·18 유공자와 유족,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목포역광장에서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5·18기념문화제'를 연다. 목포역 광장은 1980년 5월 광주의 10일간 항쟁이 하루 지난 5월 28일까지도 시위가 진행된 곳으로, 전남 5·18의 상징적 공간이다.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의 11개 광역시·도에 5·18기념행사위원회가 구성돼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5월 내내 이어지고, 독일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곳곳에서도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방부, 北발사체 국회보고… 단거리 미사일 아닌 듯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게 전략무기였다면 전략군 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텐데,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했다"며 "그래서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닌가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전략무기를 단종으로 시험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방사포 등 여러가지를 섞어서 발사하며 훈련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보고 청취 후 취재진에게 "현재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정밀 정보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 9·19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